

QR코드를 찍으면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커넥트(Connect) 하다

초박판 심(SIM) 카드 금형 개발 기술 지원

결국 모든 것은 통해야 한다. 사람도, 환경도, 심지어 사람이 만든 아주 미세한 기술까지도. 통하고 연결되면 세상이 더욱 넓어지고 시야는 확보된다. 금형기술그룹 이성희 수석연구원으로부터 ‘초박판 심(SIM) 카드 금형 개발 기술’을 지원받은 ㈜에이프로,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전자기기 내부에 자리 잡은 커넥터를 만드는 기술이었다. 하나의 스마트폰에는 크고 작은 커넥터 15여 종이 들어가는데, 갈수록 얇고 작은 커넥터가 요구되면서 이를 만드는 금형 기술 역시 까다로워지는 현실 속에서, ㈜에이프로 김영세 대표는 이성희 수석연구원의 연구실을 노크했다. 기업에 흔쾌히 연구실 문을 활짝 연 이성희 수석연구원은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줌으로써 산적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기술지원기업 ㈜에이프로

연구책임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금형기술그룹 이성희 수석연구원

시뮬레이션이 가져온, 거의 모든 것의 절약

에이프로는 초정밀 커넥터와 금형 제작 및 사출 생산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주로 스마트폰과 TV에 들어가는 커넥터를 만드는 에이프로는 2010년 9월 법인 설립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 시

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에이프로 김영세 대표는 “아파트 공장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회사가 성장하는데 있어 생기원의 도움이 컸다”는 감사의 인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영세 대표와 금형기술그룹 이성희 수석연구원이 연을 맺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 한 정부 과제를 진행하면서다. 당시 다른 기업의 실무 부장으로 활동하던 김영세 대표는 이성희 수석연구원으로부터 금형 기술에 대한 조언을 받았고, 당시 기술 조언을 받은 김 대표는 이 수석연구원에 대해 ‘진짜 실력자’라고 생각하며 감탄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2년 후, 김영세 대표는 자신의 회사를 만들었고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이성희 수석연구원의 연구실을 찾았다. 회사 설립은 9월, 생기원을 찾아가 기술 자문을 얻기 시작한 건 같은 해 12월이었다. “부친 금형기술센터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사이”라며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던 당시를 회상하던 이성희 수석연구원은 “당시 센터가 있던 단지 내 광장에서 오고 가며 얼굴을 자주 봤다. 어찌다 보니 틈나면 커피 한 잔 하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고 이야기 했다.

이를 계기로 이성희 수석연구원으로부터 ‘초박판

▼ 에이프로 김영세 대표(좌)와 금형기술그룹 이성희 수석연구원(우)

